

buddhanews.com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25면에서 계속

하... “아, 더더욱 그렇지, 그렇다.” 그러면서 좀 짙어 보았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삼백 정도 되겠어. 왜 그랬느냐 하면 도둑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어리석으니가 저지르는 거지, 본래 본성이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강도는 아니든, 도둑이든 아니든, 선하게 사는 사람인데 간에 본성은 다 평등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환경에 쫓달라고 바람에 쓸려서, 이리다 보니까 남의 다리를 긁게 되고 그것도 시원치 않으니가 훔치러도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맑은 모자라게 하더라도 듣는 건 잘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분함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 오계도 거기 포함돼 들어가니까, 못났든 잘났든 모두가 자기가 있으니가 상대가 있고, 사느냐고 애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없죠? 따따부따 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분함은 처음에 공부할 때에 이렇게 공부를 해라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부처님께서 당시에 가르칠 땐 그렇게 가르쳤단 얘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모두 남의 탓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탓으로 생각하라. 내가 잘못했지 못했는지, 잘한 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내 탓으로 생각하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부딪치는 거지 내가 없다면 어떻게 부딪칠 수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안 그럴까요? 허공에다가 돌을 친다고 소리 나는데 보셨어요? 돌이 마주 치니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탓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있는 탓으로 인해서 상대에 부딪칠 수도 있고 상대로 인해서 누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첫째, 모든 것을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은사에게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불가에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안과 바깥의 모든 걸 다 모아라 이겁니다. 모으는 작업을 해라. 정(定)에다 놓는 작업을 해라. 이게 계향(戒香)이예요.

정향(定香)이라 하는 것은 한국에다 모아서 익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익어진 것을, 아, 이제는 내 주장자가 얽혀서, 딱 심봉이 박혀 있으니까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게끔 됐을 때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정향! 완전히 심봉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때, 이제는 그 정향 속에서 들리고 내는 살림살이가 여여하게 들리고 내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게 여여하게 돌아가게 되자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서 여여하게 하나가 자기 말이 법이 돼서 그대로, 들이고 내는 것이 모두 넘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또는 깨내도 졸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정향에서 들이고 내는 데 완전히 손색이

없다면 그때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혜향(慧香)이라고 그랬습니다. 혜향! 지혜 혜(慧)자 혜향!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 오면서 느끼고 배운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분함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 ‘아하!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구나.’ 하고요. 하하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처는 많고도 많더군요. 전부 그냥, 전부 부처예요. ‘전부 주인공이십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혜로워지면 그때는 들어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걸 자세히 얘기할까요? 심령을 천 개, 만 개를 넣어도 두드러짐이 없죠? 그렇죠? 이 허공에 짙은 마음을 다 꺼내대도 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등공법(平等空法)에 의해서 나오는 법 아닌 법입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졸지

아 주는 거죠. 그것을 풀어 주게 되면 자기가 한생을 살아가면서 집착하게 되거든요. 진화를 해서 형성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습을 가지고 몇천 년 그냥 가도,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이게 말로는 안 되는 얘기도, 그래서 ‘해탈향’ 이겁니다. ‘더불어 같이 묶인 무명을 풀어 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 아픈처럼 생각하고 풀어 준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이것은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 하면 또 복잡해서 머리에 들어가기도 않을 테니까요. ‘해탈지견향’ 하면 미생들에서부터 모든 게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게 없고, 내 아픈 아닌 게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도량 아님이 없으므로 일체 부처하고도 돌아다니고, 일체 삼라만상 대천

륜 마크나 만(卍) 자 이런 것입니다. 그게 한탄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중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상세계도 엄연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중세계에서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러한 공부가 돼서 진짜로 인가를 받을 수가 있다면 벗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대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옷을 벗으려면 벗고 말려면 말고, 금방 옷을 여가다 벗어 놓고선 그냥 가서 또 자유히서 이 옷을 입으려고 입고, 저 옷을 입으려고 입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해 보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죠. 한국전쟁 때 말입니다. 접시비행기라는 말 들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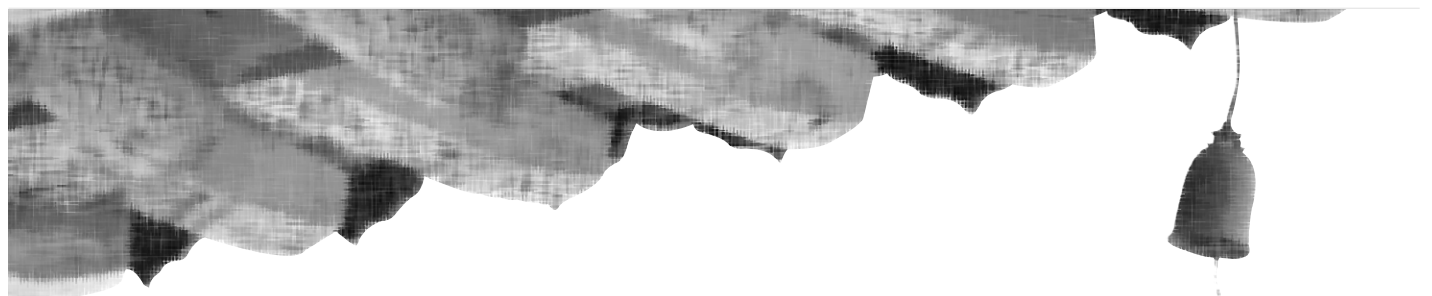
로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부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法身)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했으면 움직여라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현신이 되거든요. 그것은 보현신이 되기 이전에 한 잘나에 화신(化身)으로 화해서 보현신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삼신(三身)이 바로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생각을 냈다 하면 움직여라, ‘저기 있는 거 가져와야지.’ 한다면 벌써 일어나서 움직여라? 그것이 그대로 바로 법신이자 부처이자 보현신이예요. 그냥 그대로, 따따부따 배를 게 얹어요. 따따부따 배우다간 뭐, 이 생이 다 가겠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바른팔은 문수요, 부처님의 왼팔은 보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허허하...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이 팔을 생각해 보세요. (양팔을 벌려 보이시면서) 내 바른팔은 문수이고, 왼팔은 보현이다 이렇게요. 이거는 (왼팔을 들어 보이시면서) 바른팔을 도와주거든요. 어디까지나. 바른팔만으로도 할 수 있을 때는 혼자 그냥 단독으로 해 버려요. 그러나 어디가 좀 무겁다 이러면 왼팔이 도와주죠, 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번 한 개체에 다양하게 다 들어 있는데, 말로 하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제일 시급한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통이 속에 영계성·인교성·업보성·세균성·유전성, 다섯 가지가 다 들어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적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독안에 들어도 못 면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 지금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게 하려면 컴퓨터에 입력했다고 하면 될 거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컴퓨터이니까요.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해라 이겁니다. 그것도 골라서 입력을 해라 이거죠. 그대로 입력을 하면 그대로 들어가니까, 다시 한 번 골라서 거기다 입력을 해라. ‘현 물이 나온 것도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새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곤 바꾸어서 그냥 탁 넣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현 물, 새 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가는 데 일거수일투족이 다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5년 12월 3일 국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성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미음성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떡하고 가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미래는 훤히 내다보일 것입니다!

않는다 하는 혜향이 있습니다. 그 혜향이 이제 완성되면, 이게 깨내도 졸지 않고 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게끔 완성된다면 마음이 다 익어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면 그 속에 지금 오계로 받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게 익어 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해탈향(解脫香)이 나옵니다. 그때 뭐냐 하면 바깥에 다니면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같이 와서 얘기를 하거나, 뭐 하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거나, 이런 것들 전체를 그저 보는 대로 무명을 거둬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거둬 주는 게 아니라 일체 선명하게 살아가면서 ‘지혜로워져서 그 무명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진화를 해라.’ 이렇게 진화를 시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초중학교 다니는 것을 중학교로 올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걸 철दान에 올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레차레 이렇게 올라가게끔 무명을 전부 벗겨 주는 것입니다. 묶어진 마음을 다 해쳐 주는 것입니다. 무명에 얽매어서 헤어지지 못하는 생명들을 다 그냥 풀

세계가 전부 하나로 묶여져서 퍼지고, 펼쳐지고, 묶어지고, 하나로 되고, 수만으로도 되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만이 구경(究竟) 도리전에 이르러서 자유스럽게,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 번에, 한 생각에, 참나에 돌아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같이 응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이런 소립니다. 또 같이 할 수 있고, 내가 되지 않는 게 없고, 내 몸 아닌 되는 게 없고, 지장·아촉·아미타·미륵·칠성·관세음·지신·운신 모든 것이 내가 아니 됨이 없을 때 해탈지견향입니다.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 얻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름 아닌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 아닌 이름! 그래서 한울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된다 하는 것은, 도리전을 큰 바다라고 하면 이 바다 가운데서 그냥 인정을 한다, 인가(印可)를 한다 이런 거죠. 그냥 진동이에, 이 몸 아닌 몸 잔동이에 그냥 처여 (주먹으로 손바닥에 도장을 찍듯이 하시며) 인가를 받죠. 이렇게 인가받은 도장이 바로 법

썩었? 많이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게 접시 모양만 아니라 타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뭐 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생긴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보셨습니까? 난 그때에 나이가 어렸지만 말입니다. 한 스톨서넷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가 이렇게 됐는데 그 하나에서 줄을 지어서 나와요. 지금이 아니라 한 15년 전, 20년 전 얘깁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아하! 이걸 마음의 자유로구나. 모습을 이걸로도 하고 저걸로도 할 수 있으니 부처님께서 천백화화신으로 화(化)해서 나오게 되면 천차만별도 모습이 돼서 응신(應身)으로 돼 준다고 하신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에 보살들을 해야 할 수 없이 낳아서, 원하는 중생들에게 모두 하나로 응신이 돼 주신다고 그러셨죠. 또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 놓으니까 한쪽에는 문수보살, 한쪽에는 보현보살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이 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美山 佛敎 居士를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총무원장, 중앙총회위원 역
- 연세대학교 대학원교수
- 한양대학교 대학 겸임교수
- 한여대암 주지
-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사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h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헌의 정착 범인에 관한 고찰 등
-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21C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차례]

- 제 1장-기본학습
- 제 2장-중요경전
- 제 3장-불공법
- 제 4장-진언과 다라니
- 제 5장-각종발원문
- 제 6장-기도제법습기
- 제 7장-불사출판수지공덕
- 제 8장-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 제 9장-자가기도법
- 제 10장-불교기초지식
- 제 11장-권선문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제 8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 ◆초급반(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상단예배, 불공식식 등
 - ◆중급반(3개월) :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반(3개월) : 49재,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기타모든의식
 - ◆특수반 :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요잡바라 사다라니바라 실품이 연화무
 - 불교무용에 관심있으신분 환영함 (특수반수업은 매일 가능함)
 - 매주 강의요일 : 수·목 오후 3시 ~ 5시
- 본원은 초종교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사무실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98-12 보리원
 전화 051)555-0969 / 핸드폰 011)849-0961
 불교모든행사와 의식을 근거에맞는 스님들음모시고 여법하게봉행하여 드립니다.

전통범음범패전수원 원광사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발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랑이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충보충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뱃뱃뱃,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편티, 와신삼매요, 보석연꽃편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만애인(손목,목발보도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주문도대인 : www.법왕정사.kr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실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약품으로도 구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